

## 좋은 친구가 되는 세 가지 조건<불경>

첫째, 친구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사람  
둘째, 친구의 행복을 기뻐해 주는 사람  
셋째, 친구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

‘친구는 긴급할 때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친구라도 흥허물없이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친구인가.

어느 한 마을에 동문수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그리하여 마침내 한 친구가 먼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친구는 불행하게도 계속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공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그의 가족들은 피죽에 나무뿌리를 캐어 먹으며 견뎠습니다.

그러나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자 부인은 남편을 채근했습니다.

“친구가 벼슬자리에 있으니 식량을 얻어와 봐요.”

그는 출세한 친구에게 구걸한다는 것이 멋쩍었지만, 누구보다 친한 사이였기에 이해해 주리라 믿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는지 자기가 왔다는 말에 친구는 만나주지도 않고 아전 졸개들을

동원해 육모방망이 세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었고

“그래 이놈,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우정을 배신한 너를 응징해 주마.”

한 맷힌 친구는 그 길로 집안은 돌아보지도 않고 깊은 절에 들어가 책이 닳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길 몇 년, 마침내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되었노라고 눈을 부라리며 집에 와보니, 포동포동하게 살찐 자식들과 어여쁘게 단장을 한 아내가 그 원수 같은 친구와 함께 자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분기탱천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이놈, 네가 나를 팔시하다 못해 이젠 내 마누라 까지...,”

그리자 친구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 의심하지 말게, 자네가 학업에 지쳐있는 것 같아 내 일부러 질끈 눈을 감았었네, 자네가  
떠나 있는 동안 가족들은 내가 잘 보살폈다네.”

“ 아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제야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목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출처 :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108 가지 따뜻한 이야기, 이상각 지음)

---

Free	자유로울 수 있고
Remember	언제나 기억에 남으며
Idea	항상 생각하게 되고
Enjoy	같이 있으면 즐거우며
Need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며
Depend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

“Friend”

## 良い友達になる三つの条件<仏経>

第一, 友達の過ちを悟らせてくれる人。

第二, 友達の幸せを喜んでくれる人。

第三, 友達の苦難を一緒にする人。

‘友達は緊急な時に判ることが出来る。’という言葉があるように、日常生活ではどんな友達でも心安く過ごすことが出来る。しかし、真心を交わす友達は捜しても見つからないことです。

私はあなたにどんな友達か。

ある村に同門修学した友達がいました。

彼らはお互いに励ましながら熱心に勉強したし、そして遂に一友達が先に過去に合格して官職を受けて去るようになりました。

残った友達は不幸にもずっと過去に落ちました。

彼の勉強の後手伝いをするために彼の家族たちは草や木根を掘って食べながら耐えました。しかし、それ以上堪え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奥さんはご主人を叱りました。

“友達が官職にあるから食糧を貰って来て見なさい。”

彼は出世した友達に物乞いするということが照れくさかったが、誰より親しい関係だったから理解してくれると信じて彼を尋ねました。

ところでその間に心が変わったのか自分が来たという話に友達は会ってくれるのもせずに部下を動員して殴る洗礼を受けました。

彼はあまりにも悔しくて悔しくて涙が出ました。

それで歯を食いしばって

“この野郎、私も必ず科挙に合格して友情を裏切ったお前を戒めてあげる。”

恨みを抱いた友達はその道で家は見もせず深いお寺に入って本が擦れるように勉強をしました。

そうするのを何年、遂に彼は科挙にトップで合格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これからは良いと目をむいて家に来て見たら、まるまる太っている子たちと綺麗に着こなした妻がその敵みたいな友達と一緒に自分を迎えるのではないですか？

彼は怒りが収まらず、大声を出しました。

“これ、こいつ、君が私を無視して今度は私の妻まで…、”

すると友達はからから笑いながら言った。

韓国通信 2008年12月 第2週

“ 疑わないでくれ、お前が学業にくたびれているようで、私がわざわざきゅうっと目を瞑ったの、お前が  
去っているうちに家族たちは私がよく面倒を見た。”

“ ああ、これが何の言葉か？”

やっと前後事情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彼は涙を流して友達の手首をつかんでずいぶん長い間泣きました。

(出處：人間関係を開く108種の暖かい話、イサンガック作)

---

Free	自由になれるし
Remember	いつも記憶に残って
Idea	いつも思うようになって
Enjoy	一緒にいれば楽しくて
Need	必要な時、横にいてくれて
Depend	苦しい時に頼ることができる貴い存在

” Friend”